

## 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### 일본정부, 지진보험 부담비율 확대 방침

- 동일본 대지진 피해 보상으로 손해보험회사의 지진보험금 지급이 증가함에 따라 일본정부는 정부와 손해보험회사가 공동운영하는 지진보험의 정부 부담비율을 확대할 방침임.
  - 일본의 지진보험은 1966년에 제정된 법률에 따라 정부와 민간 손해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재보험회사를 설립하고 양쪽이 보험금 지급을 책임지는 방식의 정책성 보험임.
  - 지진보험은 일반적으로 화재보험 등의 재물보험에 특약형태로 가입할 수 있는데 지역별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며 현재 가입률이 23%임.
  - 현재 보험금 지급책임 총한도는 약 5조 5천억엔으로 그 중 약 4조 3천억엔을 정부가 지급보증하고, 나머지 1조 2천억엔을 손해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책임짐.
- 정부의 추가부담액은 약 5천억엔으로 정부의 지급책임 총한도가 4조 8천억엔으로 늘어나며, 이에 따라 부담비율도 현재 86.0%에서 87.2%로 확대될 전망이다.
  - 부담비율의 확대방침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손해보험회사의 경영에 큰 압박을 주고 있고, 향후 대규모 지진의 추가 발생 시 원활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임.
- 현재 일본 정부와 손보업계는 지진보험금 지급에 대비하여 약 2조 3천억엔을 적립하고 있어 금번 지진으로 인한 1조엔 규모의 보험금 지급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.
  - 일본 손보협회는 동일본 대지진 지급보험금이 1996년 고베 대지진의 783억엔을 현저하게 상회한 사상최대 규모로 약 1조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.
  - 지진보험의 지급준비금으로 2010년 3월 기준 손보업계가 1조 210억엔, 정부가 1조 2,708억엔을 각각 적립하고 있어 이번 지진재해에 따른 보험금 지급은 충분히 가능함.
  - 다만, 지진보험금 지급 후 종전의 수준으로 지급준비금을 재적립하는 데에는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.

(로이타 4/28, 4/22, 산케이Biz, 4/28, 요미우리신문 4/23 등 뉴스 종합)